

## 동진(東晉)시대부터 송원(宋元)에 이르는 도교의 ‘삼십육천설(三十六天說)’ 발생과정과 층적(層積)\*

쑤웨이지에(孫偉傑)\*\*

### ■ 국문요약

‘삼십육천설(三十六天說)’은 도교의 여러 가지 천계(天界) 구성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유송(劉宋) 천사도(天師道)의 경전인 『태진과(太真科)』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동진시대에 발생하였다. 도교는 ‘삼십육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교 천계관(天界觀)의 영향도 받았고, 중국 전통의 ‘도일기(道一氣)’ 우주론과도 결합하였다. 아울러 영보경(靈寶經)의 ‘삼십육천’ 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납음이론(納音理論)의 ‘오방기수(五方炁數)’, 도교의 “현(玄), 원(元), 시삼기(始三炁)”, “삼청천(三清天) [境]” 및 상청경(上清經) 계열의 ‘구천(九天)’, ‘삼십육천(三十六天)’, 천수(天數) ‘십이(十二)’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사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동진 남북조시대에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한 이론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당나라 초기에 이르러 ‘사종민천이론(四種民天理論)’의 형성 및 삼청천과 삼십이천(三十二天)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라천(大羅天) - 삼청천(三清天) - 종민천(種民天) - 삼계

\* 본고는 제63회 중국 박사후 과학기금(2018M631096)의 후원을 받아 작성하였다.

\*\* 철학박사, 사천대학 도교와 종교문화연구소 부연구원, 석사지도교사

천(三界天)”의 구조가 완성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하여 끊임없는 수정과 확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삼십육천설’은 다양한 의미가 겹겹이 쌓여진 결과물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다. 그리고 송원시대에 와서는 또 ‘옥황(玉皇)’에 대한 신격도 추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삼십육천설’이란 하늘을 주제로 한 천계이론(天界理論)의 총칭인 것이다.

**주제어:** 도교천계관(道敎天界觀), 삼십육천설(三十六天說), 영보경(靈寶經), 상청경(上淸經), 층루(層累)

I. 동진남북조시대 도교경전 속의 삼십육천설

II. 당나라 초기 '삼십육천설'의 형성

III. 당(唐)·송(宋)·원(元) 도교의 '삼십육천설'에 대한 다차원적 조정

IV. 결론

도교사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인 '三十六天說'은 수많은 조정과 가감과정을 거쳐 형성된 사상이다. 이 이론이 발생할 초기에 중국은 아주 복잡한 종교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동진남북조시대 불교의 논쟁이 일으킨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天師道、上清經계파、靈寶經계파 등 다양한 계파 간에 커다란 이론적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三十六天說'은 발생 초기부터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이론이 형성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도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麥谷邦夫、曾召南、蕭登福、小林正美、王皓月、路旻 등 학자들이 이미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관련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路旻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괄해 보면 현재 학계의 논쟁은 劉宋 天師道經典인 『太真科』와 南齊 嚴東의 『度人經註』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劉宋의 『太真科』에 이미 완전한 '三十六天說'이 실려 있다는 것으로, 후세에 와서는 단지 『太真科』의 天界說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논쟁은 嚴東이 三十六天 사상을 개편한 핵심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조정을 거쳐 천계설은 계속 변화발전 하였고, 마침내 당나라에 와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본고는 '三十六天說'이 당나라에 와서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구체적으로 '三十六天說'이 어떠한 진승과정을 거쳤고, 어느 시점에서 중요

한 이론적 변화가 생겨난 것이며, 관련성과와 논평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아래 순차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면, 역대 도교에서 언급한 三天<sup>1)</sup>、六天、九天、三十六天 등 ‘天’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天의 의미가 복잡하고, 일부 개념은 확실한 해석이 부족한 점에 대해 미리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직 “大羅天—三清天—種民天—三界天”의 핵심 구조에 대해서만 깊게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三十六天說’이 도교 내부에서의 변화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sup>2)</sup>

## I. 동진남북조시대 도교경전 속의 삼십육천설

### 1. 天師道 경전 속의 三天、六天、三十六天

필자는 먼저 동진의 천사도에서 유행하던 三天과 六天 사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小林正美에 의하면 도교의 三天은 동진남북조시대에 매우 유행했는데, 天師道、上清派、葛氏道 등 문헌에서 모두 삼천에 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진 말기의 천사도는 三天에 대해 각별히 중요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동진말기 천사도의 삼천 개념은 초기에 葛氏道の 原本 『五符經序』와 原本 『五符經』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천사도는 “太清玄元上三天”와 “太清玄元無上三天”이라고 하는 독특한 칭호를 만들어 내면서, 다른 교파와 차별을 이룬다.<sup>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천사도의 三天과 三

1) 만약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이하 문장에서 사용하는 ‘三天’이란 ‘36천’에 있는 ‘三清天’을 의미한다.

2) 36천과 관련된 불교의 세계관에 대하여, 필자는 다른 논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十六天 시스템 속의 삼천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三十六天의 삼천은 보통 三清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大羅天에 버금가는 第二天界이다. 하지만 천사도의 삼천은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로서의 '三天'을 의미하고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女青鬼律』의 “太清玄元上三天”, “上三天生氣” 등이 그것이다. 즉 이 문장은 三清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두 개의 개념은 명칭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 다른 근거로 천사도의 삼천은 보통 六天과 상응하는데, 구체적으로 『三天內解經』에서는 “新出老君之制, 罷廢六天三道, 時事平正三天”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삼천은 '六天故氣'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三天正法'인 것이다.

이제 천사도의 '六天'을 보기로 하자. 王宗昱 교수에 의하면, 육천이란 鄭玄의 해석이 대표적인데, 그것은 儒家의 官方祭禮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도교의 육천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유교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는 육천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도교의 육천에 대한 비판은 주로 儒家의 禮樂制度이다.<sup>4)</sup> 왕교수는 이어 말하기를 '육천'이란 유가의 제사제도에서는 天界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도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sup>5)</sup> 그리고 小林正美에 의하면 '六天故氣'의 육천은 鄭玄의 육천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개념은 “鄴都六天鬼宮”에서 온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육천 사상은 음양오행 중 북방에 해당하는 '6'을 의미한다고 했다.<sup>6)</sup> 이상 종합해 볼 때, 동진 천사도 경전에 나오는 三天、六天은 의미적으로 볼 때,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36천' 개념속의 三天、六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三十六天說은 동진 천사도의 개념

3) [日] 小林正美 著·李慶 번역, 『六朝道教史研究』(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1), pp.473-483, pp.477-479.

4) 王宗昱, 『道教的六天說』, 北京大學中國傳統文化研究中心編, 『北京大學百年國學文粹』(哲學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pp.552-565.

5) 王宗昱, 『<道教義樞>研究』(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1), p.123.

6) [日] 小林正美 著·李慶 번역, 『六朝道教史研究』(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1), pp.473-483, pp.477-479.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조시기 北魏의 도사 寇謙之는 三十六天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二儀之間有三十六天，中有三十六宮，宮有一主。最高者無極至者，次曰大至真尊…『經』雲：佛者，昔於西胡得道，在三十二天，爲延真宮主。”<sup>7)</sup>라 하였다. 『魏書·釋老誌』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단지 36천이 상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구경지가 상당한 불교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결부하여 생각해 보면, 그의 이러한 이론은 불교 天界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부처를 32천에 배치한 것은 의도적인 폄하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천계에서의 佛道 신명들의 순위를 정해 놓는 방법은 후세에도 계속되었는데, 예를 들어 『三洞珠囊』은 『老君聖紀 第十卷·僞惑品』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玉清境元始天尊，位在三十五天之上…上清境太上帝君，位在三十四天之上也…大清境太極宮，即太上老君位在三十三天之上也…佛者，西胡得道，位在三十(二?)天延 真宮主，此即闕賓王是也.”<sup>8)</sup>라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구경지의 천계관과 일맥상통하다. 만약 여기서 ‘二’자를 누락했다면, 부처는 가장 낮은 하늘인 30천에 속하게 된다. 즉 道는 佛보다 높다는 사상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南朝의 劉宋 天師道의 주요 경전인 『太真科』에 三十六天의 개념이 완전하게 실려 있다<sup>9)</sup>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sup>10)</sup> 三十六天 이론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불교 천계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六朝시기 도교는 불교사상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이

7) 『魏書』 卷114, 『釋老誌』, [北齊] 魏收 撰, 『魏書』 (北京: 中華書局, 1974), 第8冊 p.3052.

8) 『三洞珠囊』 卷7, 『道藏』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聯合出版, 1988), 第25冊 p.340, p.339, p.340.

9) 王皓月, 『析經求真: 陸修靜與靈寶經關係新探』 (北京: 中華書局, 2017), p.362. pp.370-375, pp.357-376.

10) 孫偉傑, 『道教天學思想研究』 (四川大學博士論文, 2016). 路旻亦對劉宋 『太真科』已存在完整的三十六天持有異議, 參見路旻, 『晉唐道教天界觀研究』 (蘭州大學博士論文, 2018) 참고.

론을 완성해 나가는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上淸經과 靈寶經의 제작자들이 진행하였다.<sup>11)</sup> 여기서 우리는 上淸經과 靈寶經의 내용이 천사도의 天界說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이들은 천사도의 三天, 六天개념과 구별하여 자신만의 천계이론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 2. 上淸經 속의 三天, 九天 및 三十六天

상청파는 동진남북조시대의 아주 중요한 종파로, 초기에는 천사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혹자 일부 의미에서 볼 때 이들은 천사도에서 분리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하지만 두 종파는 점차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의 우주론은 구조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상청파에서 모시는 主神은 “元始天王”과 “九眞天王”으로, 開天說에 있어 이들은 “太上老君”開天說을 대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道敎 전통의 氣化宇宙論의 기초에서 三天, 九天 및 三十六天의 개념을 발전하였다.

### 1) 九天

三天에 비해 초기의 상청파는 九天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동진시대의 上淸經 『洞眞太上太霄瑯書』<sup>13)</sup>에는 九天이 三天을 통솔하여 36천을 형성한다는 이론이 있다(<표 1> 참고).

11) 劉屹, 『南朝經敎道教形成的歷史背景探析』,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等編, 『第五屆中日學者中國古代史論壇文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p.161.

12) 卿希泰主編, 『中國道教史』第1卷(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6), p.345.

13) 福永光司는 『道敎와 日本文化』라는 책에서 추측하기를 이 경전은 5세기의 작품이라 하였다. 朱越利, 『道藏分類解題』(北京: 華夏出版社, 1996), p.103 참고. 曾召南에 의하면 第1卷은 東晉楊羲, 許翽 혹은 王靈期이 작성하였고, 『洞眞太上太霄瑯書』의 나머지 9卷은 南朝의 劉宋이 작성했다고 한다. 가장 늦게 완성된 부분은 北周武帝建德 말기이다. 曾召南, 『尹軌和<樓觀先師傳>考辨』, 『四川大學學報叢刊』第25輯“宗敎學研究論”(1985), pp.75-81 참고. 『高上太霄瑯書瓊文帝章經』의 기록도 이와 동일하다.

〈표 1〉 『洞眞太上太霄瑯書』의 九天<sup>14)</sup>

	諸天名號	與下一天間隔
第一天	郁單無量天	去第二天二十四萬裏
第二天	上上禪善無量壽天	去第三天四千六百萬裏
第三天	梵監天(須延天)	去第四天六百七十二萬裏
第四天	兜術天(寂然天)	去第五天千二百四十萬裏
第五天	不驕樂天(波羅尼密天)	去第六天三千六百八十萬裏
第六天	化應聲天(他化自在天)	去第七天五千三百八十四萬裏
第七天	梵寶天(波羅尼邪拔致天)	去第八天五百二十萬裏
第八天	梵摩迦夷天(梵眾天)	去第九天六百八十萬裏
第九天	波梨答憇天(大梵天)	去下五百億二十萬裏

『洞眞太上太霄瑯書』의 천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래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天의 명칭에 매우 많은 ‘梵’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구천은 상하층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天과 天 사이에는 일정하지 않는 간격이 있다. 이는 중국 전통의 八方에 中央을 더하는 평면구조와는 다른 형식이다. 즉 이러한 구조는 아주 분명하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늘에 대한 개념에 있어 상청과는 숫자 ‘9’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에 대해 賀碧來는 말하기를 “상청과가 추구하는 최고의 숫자는 9이다. 이 숫자는 하나의 결과이고, 완벽이다. 구천의 氣라고 하는 표현은 곧 중국 전통의 숫자개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적어도 하늘의 개수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하늘의 명칭을 지을 때에는 불교의 것을 많이 차용했다.”<sup>15)</sup>라 하였다. 또 다른 주장으로 許理和는 말하기를 하늘을 九分 혹은 三十六分 하는 것은 6과 3의 숫자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였다.<sup>16)</sup> 필자의 생각으로는 賀碧來의 주

14) 『洞眞太上太霄瑯書』卷1, 『道藏』第33冊, pp.646-648, p.648.

15) [프랑스] 賀碧來 著·萬毅 번역·呂鵬誌 교정, 『佛道基本矛盾』, 『法國漢學』第7輯 “宗教史專號”(北京: 中華書局, 2002), pp.172-173. 원문 Isabelle Robinet, Notes préliminaires sur quelques antinomies fondamentales entre le bouddhisme et le taoïsme, in Lonciotti, Lionello ed., Incontro di religioni in Asia il III e il X secolod. C. (Firenze: LeoS. Olschki Editore, 1984), pp.217-242.



장이 중국 전통의 數字神聖性 인식과 더욱 잘 어울린다고 본다.

둘째, 구천의 근원에 대해 경전은 말하기를 “此九天是始炁之精”<sup>17)</sup>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천은 始炁 속의 精氣가 化生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氣化宇宙論에 속한다.

셋째, 경전은 말하기를 “(九)天別置三天. 三天者, 皆是九天之別號, 合三十六天也. 宮室官司, 悉有次第. 其外有諸梵天, 名皆以九天支幹, 悉系屬於九天王也”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곳이 있는데, 하나, 경전에서는 구체적인 36천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 여기에 있는 36천은 구천이 각각 3천을 통솔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9 \times (3 + 1) = 36$ 의 공식이다. 이렇게 “九天別置三天”이라 하여 구천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셋, 三十六天 이외에 또 諸梵天이 있다고 하는 이론은 후세의 도교로 이어졌다.

## 2) 三天

상청경에 三天이 九天 보다 높다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이는 劉宋 시대에 와서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太上三天正法經』<sup>18)</sup>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16) Erik Zürcher, “Buddhist Influence on Early Taoism: A Survey of Scriptural Evidence,” T'oung Pao, Second Series, 66:1/3(1980), p.126.

17) 福永光司는 『道敎와 日本文化』라는 책에서 추측하기를 이 경전은 5세기의 작품이라 하였다. 朱越利, 『道藏分類解題』(北京: 華夏出版社, 1996), p.103 참고. 曾召南에 의하면 第1卷은 東晉楊羲, 許翽 혹은 王靈期이 작성하였고, 『洞眞太上太霄瑯書』의 나머지 9卷은 南朝의 劉宋이 작성했다고 한다. 가장 늦게 완성된 부분은 北周武帝建德 말기이다. 曾召南, 『尹軌和<樓觀先師傳>考辨』, 『四川大學學報叢刊』 第25輯 “宗敎學研究論” (1985), pp.75-81 참고. 『高上太霄瑯書瓊文帝章經』의 기록도 이와 동일하다.

18) 이 경전은 원래 東晉 楊羲가 전수한 한 편의 上清經이다. 훗날 劉宋, 陸修靜 등 사람들이 일부改編 하였다. 王皓月, 『<三天正法經>의 成書和 演變』, 『世界宗敎文化』 (2013, 第6期), pp.71-77 참고. 路旻에 의하면 이상 기록은 南齊 嚴東의 『度人經』註 이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路旻, 『道敎三天觀新論——以清微天等三天與九天關係爲例』, 『世界宗敎文化』 (2018, 第2期), pp.149-153 참고. 이상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劉宋시대에 와서야 三(淸)天, 靈寶諸派에 대한 공감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嚴東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九天眞王與元始天王，俱生始炁之先…玄景始分，九炁存焉…九炁玄凝，成於九天圖也…便有九眞之帝，青童君曰：九眞者，九天之清炁，凝成九宮之位也。上眞、中眞、下眞。（上三眞）生於極上清微之天，清微之天是始炁之澄也。次中三眞生於禹余之天，禹余之天是元炁之澄也。下有三眞生於第三大赤天，大赤天是玄炁之澄也。<sup>19)</sup>

이 경전을 만든 사람은 우리에게 생생한 우주 생성의 그림을 보여 준다. 그 속에는 “三十六天說”에서 말하는 玄、元、始의 三炁와 清微、禹余、大赤의 三天의 대응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초기 상청경의 九天에 대한 중요시와는 다르게, 여기서 구천은 삼천에서 나온다. 물론 구체적인 구천의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구천이 상청과에서 말하는 구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太上三天正法經』에서는 이미 삼천과 구천의 관계에 대해 재조정하고 있었으며, 삼천은 구천보다 더 높다고 했다는 것이다.

### 3) 三十六天

상청경 계열에는 또 三十六天에 관한 기록도 있다. 하지만 단지 통합적으로 三十六天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天의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三清天과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梁나라 陶弘景의 『眞誥』<sup>20)</sup> 卷1에는 十方上下에 분포되어 있는 三十六天界觀이 있고, 『洞眞太上說智慧消魔眞經』<sup>21)</sup>에는 “六六三十六天”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劉宋은 아직 上清經 『上清外國放品青童內文』 卷下 “高上九玄三十六天內音”<sup>22)</sup>을 완전히 편찬하기 전에 먼저 일부

19) 『太上三天正法經』, 『道藏』 第28冊, p.406.

20) 『眞誥』 卷1, 『道藏』 第20冊, p.493, p.509.

21) 『洞眞太上說智慧消魔眞經』, 『道藏』 第33冊, p.608.

22) 『上清外國放品青童內文』 卷下, 『道藏』 第34冊, pp.18-22.

해설을 하였다. 글에서 그는 靈寶內音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三十六天內音名號에 대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玉清、上清과 太清(三清天의 의미를 갖추었다)<sup>23)</sup>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나아가 三清을 삼등분하여 九重(每重四天)을 만들고 三十六天和 상응하게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三十六天 중 每四天的 第一天(총 九天)과 『洞眞太上太霄瑯書』에 나오는 구천의 명칭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때 『上清外國放品靑童內文』의 三十六天은 『洞眞太上太霄瑯書』의 九天을 기초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靑童內文』에서는 三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清微、禹余、大赤天(경전에서는 靈赤天이라 함)을 三十六天의 앞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天을 “三清”과 “玉清”에 上、中、下 삼층으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三清天”의 의미와 개념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3. 靈寶經 속의 三天, 九天과 三十二天

영보경이 나타난 시기는 삼청경에 비해 조금 늦다. 하지만 동시대의 다른 도교경전과 비교해 볼 때 古靈寶經은 교리사상이나, 신학체계 및 재초과의 등 여러 면에서 도교사상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교 자체를 규범화, 경전화 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통일된 도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조와 隋唐 이후의 도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24)</sup> 古靈寶經

23) 李籙書에 의하면 隋나라 이전의 도교경전에 나타나는 “三清”의 용례를 보면, 보통 天界整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여러 경전은 최고 층 천계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三清”은 후세에 조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이다. 아마도 『無上秘要』와 『道教義樞』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女門大義』, 즉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만들어져 수당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李籙書, 『三清考』, 『臺大歷史學報』(2019, 第64期), 第12쪽 참고. 필자의 생각으로는 三清天의 구조는 늦어도 劉宋시대에 이미 나타났지만, 당시는 아직 명칭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大赤”을 三天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玄、元、始”을 삼천, “玉清” 등을 三天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24) 王承文, 『敦煌古靈寶經與晉唐道教』(北京: 中華書局, 2002), pp.2-3.

의 이러한 특징은 천계이론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전의 제작자가 질서 정연한 천계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 1) 三天(炁)과 九天(炁)

늦어도 劉宋의 『洞玄靈寶自然九天生神章經』의 『三寶大有金書』<sup>25)</sup>에 서는 이미 三炁, 三清境과 三寶君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天寶君者, 則大洞之尊神… 後至龍漢元年化生天寶君, 出書時號高上大有玉清宮. 靈寶君者, 則洞玄之尊神… 後至龍漢開圖, 化生靈寶君, 經一劫至赤明元年, 出書度人, 時號上清玄都二京七寶紫微宮. 神寶君者, 則洞神之尊神… 後至赤明元年化生神寶君, 經二劫至上皇元年出書, 時號三皇洞神太清太極官. 此三號雖年殊號異, 本同一也. 分爲玄元始三炁而治, 三寶皆三炁之尊神, (一)號生三炁, 三號合生九炁, 九炁出乎太空之先, 隱乎空洞之中.<sup>26)</sup>

上清, 玉清、太清的 “三清境”, 天寶、靈寶、神寶의 “三寶君” 그리고 玄、元、始의 “三炁”는 이 시기에 이미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었다. 아울러 경전 속에 “始青清微天寶章”, “元白禹余靈寶章”, “玄黃太赤神寶章”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三寶大有金書』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모두 통합하였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초기 上清經에서 九天의 지위를 가장 높게 본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三炁(天)와 九天(炁)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三天이 九天을 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靈寶經에서도 계속되는데, 예를 들어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敘教品』의 기록에 의하면 “道君曰: 元始以一炁化生三炁, 分爲三天.

25) 『正統道藏』에는 또 『靈寶自然九天生神三寶大有金書』와 『洞玄靈寶自然九天生神章經』(『道藏』第3冊, pp.266-268)이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에 대해 小林正美는 말하기를 『道藏』本 『九天生神章經』은 두 단계의 제작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三寶章』은 劉宋元嘉七年(430) 전후에 완성된 것이라 하였다. 각주 3 참고, pp.205-228.

26) 『洞玄靈寶自然九天生神章經』, 『道藏』第5冊, p.843, pp.846-848.

一曰始炁, 爲清微天, 號玉清境, 天寶君所化, 出洞眞經十二部, 以教天中九聖. 二曰元炁, 爲禹余天, 號上清境, 靈寶君所化, 出洞玄經十二部, 以教天中九眞. 三曰玄炁, 爲大赤天, 號太清境, 神寶君所化, 出洞神經十二部, 以教天中九仙.<sup>27)</sup>”이라 하였다. 『靈寶業報因緣經』속에 있는 이러한 대응관계는 아주 질서정연하다. 아마도 경전을 만든 사람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라 보여진다. 그리고 『龍驕經』과 같은 경전에는 三清天이 각 十二天을 통솔하여 총 三十六天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三洞의 十二部經書의 총합이 三十六部經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사실 『三寶大有金書』 속의 이러한 개념은 『三皇經』<sup>28)</sup>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北周의 도교경전인 『無上秘要』는 『三皇經』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三皇者則三洞之尊神, 大有之祖氣也. 天寶君者, 是大洞太元玉玄之首元; 靈寶君者, 是洞玄太素混成之始元; 神寶君者, 是洞神皓靈太虛之妙氣. 故三元凝變, 號曰三洞. 氣洞高虛, 在於大羅之分, 故大洞處於玉清之上, 洞玄則在於上清之域, 洞神總號則在於太極. 大洞之氣, 則天皇是矣. 洞玄之氣, 則地皇是矣. 洞神之氣, 則人皇是矣.”<sup>29)</sup>라 하였다. 인용문에는 이미 三寶君과 三清境의 대응관계가 나타나는데, 단지 아직은 三洞과 三清의 명칭이나 의미가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을 뿐이다(당나라 초기까지). 하지만 『三皇經』 속의 “三寶”, “大有之祖氣” 등 표현에 근거하여 볼 때, 『三寶大有金書』은 매우 오래된 경전임을 알 수 있다.

『三寶大有金書』에는 또 “郁單無量天” 등 九天의 명칭이 있다.<sup>30)</sup> 이 내용은 『洞眞太上太霄瑯書』와 『上清外國放品青童內文』의 기록에 비해

27)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卷10, 『道藏』第6冊, p.127.

28) 『三皇經』의 제작 연대는 비교적 이른데, 丁培仁先生에 의하면 이미 漢末三國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한다. 丁培仁, 『〈三皇經〉新考』, 『宗教學研究』(2012, 第4期), pp.7-12 참고. 王承文은 문장속의 “三洞”이라고 하는 단어에 근거하여 추측하기를 東晉末期에 이러한 개념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王承文, 『道教“三洞”學說的思想淵源』, 『中國哲學史』(2002, 第4期), pp.65-73 참고.

29) 『無上秘要』卷6, 『道藏』第25冊, p.19, pp.35-36, p.7.

30) 『洞玄靈寶自然九天生神章經』, 『道藏』第5冊, p.843, pp.846-848.

더욱 복잡하고, 또한 九天 중 後三天의 명칭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크다. 필자의 생각에 의하면, 『三寶大有金書』의 九天은 靈寶經 제작자들이 上淸九天的 사상을 받아들이고 일부 수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三寶大有金書』에서 언급한 九天의 명칭은 후세의 도교경전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원래의 上淸九天的 명칭을 대체하게 되었다.

## 2) 五方氣數

영보경의 天界 시스템에 의하면, 五方氣數와 천계가 서로 대응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최초로 이러한 사상을 드러낸 경전으로는 『太上洞玄靈寶五符序』의 『仙人挹服五方諸天氣經』이다. 이 책에 의하면 五方天和 五方氣數는 다음과 같다. 東方靑牙九氣之天、南方朱丹三氣之天、中央黃庭一氣之天<sup>31)</sup>、西方明石七氣之天、北方玄滋五氣之天<sup>32)</sup>. 같은 경전인 “靈寶五帝官將號”에는 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東方靈威仰 —— 從群神九十萬人 —— 9  
 南方赤飄弩 —— 從群神三十萬人 —— 3  
 中央含樞紐 —— 從群神十二萬人 —— 12  
 西方曜魄寶 —— 從群神七十萬人 —— 7  
 北方隱侯局 —— 從群神五十萬人 —— 5

이러한 五方氣數 이론은 그 이후의 『元始五老赤書玉篇眞文天書經』에서도 계속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東方九炁靑天… 南方三炁丹天… 中央一炁黃天… 西方七炁素天… 北方五炁玄天.”, “中央玉寶元靈元老一十二炁黃天.”, “中央玉寶元靈元老… 從神戊己官將十二萬人.”, “中央一炁黃天… 度十二人以補仙官.”<sup>33)</sup>이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31) “中央黃庭一氣之天”은 필자가 축약해 올린 부분으로, 원본 내용은 “中央元洞大帝之山, 上出黃氣… 大哉靈寶黃庭, 長生由一氣之固.”이다.

32) 『太上洞玄靈寶五符序』, 『道藏』 第6冊, pp.318-319.

33) 『元始五老赤書玉篇眞文天書經』 卷中, 『道藏』 第1冊, pp.789-790.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五方과 數字의 대응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中央數字 1과 12의 호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관계는 『易經』, 『禮記』, 『呂氏春秋』, 『淮南子』 등 전통문헌에 나오는 東八、南七、西九、北六、中五의 대응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도교 사상에서는 東九、南三、中一、西七、北五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최초의 문헌인 『抱樸子內篇·仙藥』를 보면 “按 『玉策記』及『開明經』皆以五音六屬，知人年命之所在…一言得之者，宮與土也。三言得之者，徵與火也。五言得之者，羽與水也。七言得之者，商與金也。九言得之者，角與木也”<sup>34)</sup>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五方數字는 納音理論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蕭登福는 隋나라의 『五行大義』의 『樂緯』를 인용하여 해석하기를, 이러한 五方炁數 사상은 한나라의 『樂緯』에 나오는 五行 “生數、壯數、老數” 이론 속에 있는 “老數”之法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하였다.<sup>35)</sup> 하지만 그는 중앙과 숫자 12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못했다.

1과 12의 호환 문제에 대해 陳昭吟은 해석하기를, 이는 도교가 고대의 十月歷、三十節氣 사상을 받아들인 후 우주관 구축에 사용한 증거라 하였다.<sup>36)</sup> 세월의 흐름과 함께 十月歷、三十節氣의 이론은 南五、北三 등과 함께 도교사상속에 추가하게 된다. 陳昭吟은 이어서 陰中生陽、陽中生陰 이론을 보충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1과 12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목적은 달리 있을 것이라 본다.

『春秋左傳正義』에는 “周之王也，制禮上物，不過十二，以爲天之數也”<sup>37)</sup>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春秋繁露·官制象天』에는 “十者天之數也，十二者歲之度也。用歲之度，條天之數，十二而天數”<sup>38)</sup>라 하였고, 『淮南子·天文訓』에는 “天維建元…十二歲而大周天，終而復始…音自

34) 王明, 『抱樸子內篇校釋』(北京: 中華書局, 1986), p.209.

35) 蕭登福, 『道教五方三界諸天“氣數”說探源』, 『成大宗教與文化學報』(2001, 第1期), pp.97-118.

36) 陳昭吟, 『早期道經諸天結構研究—以道藏本〈太上靈寶五符序〉爲中心』(山東大學博士論文, 2006), pp.58-72.

37) [清] 阮元校刻, 『十三經註疏』(北京: 中華書局, 1980), p.2162.

38) 蘇輿, 『春秋繁露義證』(北京: 中華書局, 1992), p.217.

倍而爲日，律自倍而爲辰，故日十而辰十二”<sup>39)</sup>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 이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音律(音律 역시 天數에 의해 설정되었다) 이든 天相과 관련된 숫자들, 十二는 모두 하나의 極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대의 천문학에 있어 周天을 구분할 때 보통 “十二次”, “十二宮”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숫자 12는 天文歷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천체는 끊임없이 운행한다. 세월도 끊임없이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1과 12는 일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연속이 된다. 순환의 이론에서 볼 때 이들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상 관점에서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靈寶經에 나오는 五方炁數의 근원은 納音理論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속에 天數 12의 思想을 추가해 넣은 것이다.

이 이론은 훗날 영보경에서 받아들이고, 32천의 이론에 적용하였다. 『太上靈寶諸天內音自然玉字』<sup>40)</sup>에는 32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五方炁數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였다(실질적으로는 동남서북의 사방기수이다).

東方青帝 —— 九炁青天 —— 自太黃黃曾天至太極蒙翳天 (8天)  
 南方赤帝 —— 三炁丹天 —— 自赤明和陽天至太煥極瑤天 (8天)  
 西方白帝 —— 七炁素天 —— 自元載孔升天至無極曇誓天 (8天)  
 北方黑帝 —— 五炁玄天 —— 自皓庭霄度天至太極不生育奕天 (8天)<sup>41)</sup>

이러한 대응관계는 후세의 『度人經』에서도 계속되는데, 예를 들어 唐나라 薛幽棲의 『度人經』註<sup>42)</sup>가 그것이다. 남송의 陳椿榮가 『度人經』

39) 何寧, 『淮南子集釋』(北京: 中華書局, 1998), p.223.

40) 王皓月에게 의하면 이 경전은 초기에 元始系 『靈寶經』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대는 대략 425~432 사이라 한다. 이는 『度人經』(使用 『三十二天內音玉字』的正音), 『太上洞玄靈寶滅度五煉生屍妙經』(使用 『三十二天內音玉字』的秘篆文), 『太上洞玄靈寶空洞靈章經』(出現了三十二天帝的章頌)과 『洞玄靈寶長夜之府九幽玉眞明眞科』(出現 “三十二天帝”的稱呼)에 비해 더욱 일찍된 기록이라 하겠다. 각주 9, pp.328-329 참고.

41) 『太上靈寶諸天內音自然玉字』, 『道藏』 第2冊, pp.532-536.

42) [北宋] 陳景元集,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卷2, 『道藏』 第2冊, p.217, p.226, p.213, p.217, p.217.



주를 지을 때에는 또 “十天: 東方九炁青天、南方三炁丹天、西方七炁素天、北方五炁玄天、東北東南西南西北四炁炁天、上方一炁昊天、下方一十二炁皇天”<sup>43)</sup>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1과 12를 각각十方 중의 上、下二方과 대응하여 보았는데, 즉 중앙은 이상 두 개의 숫자와 대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靈寶五符序』에 나오는 五方炁數의 개념은 上清經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眞誥』의 기록에 의하면 楊羲는 魏夫人의 長子인 劉璞로부터 靈寶五符<sup>44)</sup>를 전수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楊羲는 이미 五方炁數의 개념에 대해 상당히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개념을 『上清大洞眞經』에 기록해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上清大洞眞經』 卷1에는 “東向冥心叩齒九通… 南向冥目叩齒三通… 西向冥目叩齒七通… 北向冥目叩齒五通… 正向本命上冥目叩齒十二通”<sup>45)</sup>이라 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五方炁數와 上清存思術의 결합은 上清經典이 자신만의 道法特征을 수정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이다.

### 3) 三界와 四方 三十二天

불교 세계관의 영향아래, 『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 卷1에서는 최초로 “三十六天說”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三界天”과 “四方三十二天”이론을 영보경에 수록해 넣었다. 비록 아직은 조금 투박하지만 그래도 元始天尊 및 四方 各八天 총 三十二天 및 각 천의 一帝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있다.<sup>46)</sup> 이러한 天神創生天界의 구도는 도교 전통의 “老君開天說”을 계승한 것으로, 단지 主神을 靈寶經에서 숭배하는 元始天尊으로 바꿨을 뿐이다. 이 四方 三十二天 이론은 당시 불교의 忉利天의 영향을 받았다.<sup>47)</sup> 불교의 忉利天은 欲界의 第二天이다. 須彌山 정상

43) [南宋] 陳椿榮集註, 『太上洞玄靈寶無量度人上品經法』 卷3, 『道藏』 第2冊, p.505.

44) 『眞誥』 卷1, 『道藏』 第20冊, p.493, p.509.

45) 『上清大洞眞經』 卷1, 『道藏』 第1冊, pp.516-519.

46) 『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 卷1, 『道藏』 第1冊, pp.1-4, p.18, p.25, pp.133-134, p.11, p.5.

에 있으며, 중앙은 帝釋天이고 사방에는 八天國이 있다. 『度人經』의 四方 三十二天은 평면 구조를 한 三十二天으로, 이는 上清經의 上下 구조를 한 天界觀 하고는 사뭇 다르다.

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三十二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度人經』 卷3에는 “東方八天: 明持玉陽天 … 北方八天 … 道遠浩流天”<sup>48)</sup>라 하였고, 卷4에서는 “東方八天: 義明昭正天 … 北方八天 … 沈淵泛生天”<sup>49)</sup>이라 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二十四天, 三十六天 등 다양한 하늘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卷20에서는 二十四天: “東方六天: … 碧梵玄無天 … 碧空臻際天 … 北方六天: … 碧虛凝陽天”<sup>50)</sup>을 말하고, 卷2에서는 三十六天: “東方九天: 玉宸梵遙天 … 北方九天: … 光空百宗天.”<sup>51)</sup>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록 『度人經』이 하늘에 대한 수량이나 명칭에서 차이나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론은 여전히 卷1에 나오는 平面 四方 三十二天에 대한 계승이라 할 수 있다.

『度人經』은 또 불교의 “三界”學說을 받아들인다. 欲界、色界、無色界는 佛敎 天界說의 기본구조이다. 『度人經』은 이 이론을 차용 및 일부 개조하였다. 경전에 의하면 “第一欲界飛空之音、第二色界魔王之章、第三無色界魔王歌”라 하였다. 그리고 第三無色界魔王歌에는 “三界之上, 眇眇大羅”<sup>52)</sup>이라고 하는 歌訣이 나타난다. 여기에 나오는 “大羅”를 우리는 “三十六天說”의 최고천인 大羅天으로 보아야 한다. 후세의 경전에 나오는 大羅天이 三清天의 위에 있다는 학설에 비해, 이 시기의 “三十六天”理論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단지 三界天和 三十二

47) 王皓月, 『析經求真: 陸修靜與靈寶經關係新探』(北京: 中華書局, 2017), p.362, pp.370-375, pp.357-376.

48) 『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 卷1, 『道藏』 第1冊, pp.1-4, p.18, p.25, pp.133-134, p.11, p.5.

49) 같은 책.

50) 같은 책.

51) 같은 책.

52) 같은 책.

天만 보이고, 아직 三淸天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 다른 古靈寶經인 『太上洞玄靈寶諸天靈書度命妙經』 역시 아직 三淸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경전의 '大羅'에 대한 해석은 『度人經』과 비슷하다. 즉 대라천을 三界天 위의 아주 높은 하늘로 해석해 놓았다. 그리고 이 경전은 三界 二十八天에 대해 아주 완벽한 해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凡是諸雜法，導引養生法術，變化經方，及散雜俗，並系六天之中、欲界之內，遇小劫一會，其法並滅，無復遺余。其是太淸雜化符圖，太平道經，雜道法術，諸小品經，並周旋上下十八天中，在色界之內。至大劫之交，天地改度，其文仍沒，無復遺余。其玉淸上道，三洞神經，神眞虎文、金書玉字、靈寶眞經，並出元始，處於二十八天，無色之上。大劫周時，其文並還無上大羅中玉京之山七寶玄臺，災所不及。大羅天是五億五萬五千五百五十五天之上天也。<sup>53)</sup>”라 하였다. 저자는 문장에서 “莫不悉從靈寶受度”，“此經獨存，其法不絕”이라 하였고，導引養生法術 등 術을 欲界六天에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 太平道經은 於色界十八天에 배치하였다. 靈寶眞經은 元始天尊한테서 나왔으며，無色계의 위에 자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경전을 만든 사람은 여러 道法에 대해 잘 정리하여 놓으면서 靈寶經을 칭송하고자 하였다.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靈寶眞經은 天界之“上”에 자리해 있다.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경전은 天界之“內”에 있다. 이러한 묘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靈寶經은 평소에 三界天之上，大羅天之下에 위치해 있다가，大劫이 일어나면 大羅天으로 올라가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二十八天，無色之上”에서 말하는 二十八天은 三界의 모든 天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三界天은 각각 欲界六天，色界十八天和 無色界四天으로，이는 도교 경전에서 자주 보이는 三界天에 대한 구분법이다. 즉 이상 이론은 『度人經』에 비해 三界天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三淸天和 靈寶 三十二天 시스템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했

53) 『太上洞玄靈寶諸天靈書度命妙經』, 『道藏』 第1冊, p.804.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度人經』이든 『太上洞玄靈寶諸天靈書度命妙經』이든 모두 大羅天을 三界天의 위에 배치하면서, 중간에 있는 三清天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4. 南齊 嚴東의 『度人經註』에 나오는 天界說

上清 三十六天和 靈寶 三十二天이 세상에 나온 이후, 교단 내부에서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南齊의 嚴東<sup>54)</sup>은 『度人經』에 주석을 달 때, 두 가지 天界說에 대해 조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三十六天諸(涵蓋三清天、三界天、三十二天與大羅天)에 대해 조정을 시도한 경전이다. 그의 천계 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靈寶 三十二天을 계승하는 기초에서, 그는 黃、靑、蒼의 三天을 추가해 넣었다. 이에 대해 경전은 말하기를 “三十二天位在四方，方有八天，合三十二天也，三天羅其上，大羅之上，並皆空虛。有自然五霞，其色蒼黃，號曰黃天。黃天之上，其色靑蒼，號曰蒼天。蒼天之上，其處玄空，積空成靑，號曰靑天。凡有三十五天，各有分野，並總系元始之炁，無上之道也。故曰總炁上元也。”<sup>55)</sup>라 하였다. 엄동에 의하면 三十五天은 모두 元始之炁가 생성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볼 때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氣化宇宙思想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천계의 구성에 있어 黃、蒼、靑의 三天을 三十二天의 위에 배치한 것은, 이미 초보적으로 三清天의 구조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또 말하기를 大羅의 위는 하나의 空虛라 하였는데, 이는 大羅天이 최고의 天임을 의미하는 바이다.

54) 嚴東註는 원래 南齊建元(479~482)年間に 제작되었다. [南宋] 陳葆光 撰集, 『三洞群仙錄』 卷16, 『道藏』 第32冊, p.341 참고. 그리고 이 주석서는 陳景元의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에 수록되어 있다.

55) [北宋] 陳景元集,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卷2, 『道藏』 第2冊, p.217, p.226, p.213, p.217, p.217.

둘째, 그는 동방의 前三天을 清微、禹余、大赤의 三天(太清、上清、玉清的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에 三清天和 三十二天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에 귀속해 놓았다. 그리고 東方 後五天과 南方 前四天 및 上清 九天을 서로 대응하여 놓았고, 나머지 諸天은 上清의 남은 二十七天和 상응하게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하면 靈寶 三十二天和 三清天、上清三十六天이 서로 호환할 수 없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그는 三界天을 欲界六天、色界十二天、無色界十天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欲界六天、色界十八天、無色界四天의 구분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嚴東의 三界天의 총 숫자 역시 28인데, 이론적으로 볼 때 남은 四天은 마땅히 種民四天이어야 한다. 하지만 주석서에서 그는 種民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원인은 陳景元이 이 부분을 삭제했을 수도 있다.

상청파와 영보파의 천계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많은 도교경전은 이 두가지 천계설에 대해 따로따로 수록해 넣었다. 예를 들어 『無上秘要·眾聖本跡品下』은 『上清外國放品青童內文』의 三十六天을 수록하고, 거기에 출처는 『洞眞外國放品經』이라 표기해 두었다. 그리고 三十二天은 『洞玄靈寶無量度人經』<sup>56)</sup>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이상 종합해 보면, 중국 전통의 우주론과 불교의 천계사상의 공통적인 영향 아래 동진남북조시대 상청파와 영보파는 각자의 '三十六天說'을 구축하였다. 특히 劉宋시대에 와서 이들 두 가지 요소에 대해 통합하는 과정에 속도가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사상은 서로 융합하게 되는데, 일부 이론은 상청파와 영보파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도교의 “三—”氣化宇宙論、九炁 등 개념이 그것이다. 물론 양자 간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上清經의 三十六天은 이미 三清天和 확실한 대응관계를 이루지만, 靈寶經의 三十二

56) 『無上秘要』 卷6, 『道藏』 第25冊, p.19, pp.35-36, p.7.

天은 아직 三清天과 결합하지 못했다. 靈寶經은 佛敎의 三界理論을 따라 하늘을 三十二天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三界이론은 上淸經의 三十六天理論에서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上淸經의 九天, 三十六天은 하나의 상하층 구조를 이루는 천계구조이다. 하지만 靈寶經의 四方 三十二天은 하나의 평면으로 된 天界觀을 형성한다.

## II. 당나라 초기 ‘삼십육천설’의 형성

동진남북조시대에 ‘三十六天說’은 이미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어 놓았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곧 三清天과 三十二天이 아직 다 함께 三十六天의 天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당나라 초기 『道門經法相承次序』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 1. 薛幽棲、李少微、成玄英의 『度人經註』 속의 天界說

당나라 초기 李少微<sup>57)</sup>, 成玄英<sup>58)</sup>, 薛幽棲<sup>59)</sup> 세 사람은 『度人經』의 天界思想에 대해 註解를 달고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에 수록하

57) 李少微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음. 이에 대해 陳景元은 序에서 말하기를 “太淸供奉 李少微”라 하였다. 필자의 추측으로 그의 생몰연대는 成玄英、薛幽棲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된다.

58) 『新唐書·藝文誌』의 기록에 의하면 成玄英은 貞觀五年(631)에 京師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永徽(650~655)에 郁州로 유배되었다. 強昱의 고증에 의하면, 그의 생몰연대는 대략 601~690이다. 強昱, 『從魏晉玄學到初唐重玄學』(上海: 上海文化藝術出版社, 2002), pp.212~214 참고.

59) 『三洞群仙錄』은 『高道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薛幽棲은 開元(713~741)에 進士에 합격하고, 天寶(742~756) 初에 『元微論』을 쓰고 『度人經』에 주해를 달았다고 한다. 이는 元나라의 道士 衛琪의 『玉淸無極總眞文昌大洞仙經註』에 서술한 내용과 비슷하다. 陳景元은 薛幽棲의 序言에 대해 말하기를 “甲午歲”라 하였다. 이로 미루 볼 때, 天寶十三年(754) 전후에 『度人經』註解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

였다. 이 경전은 우리가 당나라 초기의 “三十六天說”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於陳景은 편집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핵심만 수록”하였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四註』는 陳景元이 정성껏 편집한 부분이지, 四家註本의 원래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나라의 천계관을 파악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해설은 원래의 주석이 아니라 陳景元의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아래 세 사람의 주석서에 있는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三十二天에 대한 주석에 있어 李少微의 주석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때, 陳景元은 그의 이론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은 成玄英이고, 가장 적은 사람이 薛幽棲이다. 아래 구체적으로 이들이 “三十六天說”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보기로 하자.

첫째, 李少微, 成玄英은 모두 種民四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三十二天의 배분이 더욱 합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成玄英은 또 色界 十八天을 세분화하여 色塵、細塵、淸塵의 三組로 나누고, 每組에 각 六天을 배치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四種民天의 개념은 그가 발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문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李少微는 天界에 대해 색상을 추가해 넣었는데, 三十二天을 순서에 따라 黃、綠、靑、赤、蒼、黑、碧、紫、白의 아홉 가지 색상을 대응해 넣었다. 주석서에 의하면 “淸明何童天”은 “黑”이다. 하지만 그의 순에 의하면 이 하늘은 마땅히 靑色이 되어야 한다.

셋째, 李少微는 三十二天의 東、南、西、北方의 第一天의 炁를 각각 西北、東北、東南、西南의 “梵炁”에 대응해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二十八天의 炁는 각각 二十八宿와 대응해 놓았다. 예를 들어 初始의 第一天 東方 黃曾天과 西北 梵炁(成玄英의 해석에 의하면 西北 奎壁二宿 炁를 담고 있다고 한다)를 대응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관계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두 사람이 동일 경전의 “旋箕歷鬥”을 해석할 때, 모두 말하기를 東北方의 箕鬥二宿의 相夾之炁는 梵炁의 初始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初始 第一天인 黃曾天을 東北方의 箕鬥之初始梵炁와 직접 대응시키지 않은 것일까. 경전의 해석은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넷째, 薛幽棲는 靈寶 三十二天과 上清 三十六天을 하나의 천계 시스템에 통합해 넣었다. 그리고 양자에 高下의 구분을 만들어 놓는다. 그에 의하면 “上清之天(上青天 아님)”은 “最尊極之位, 道齊元始, 位列玉清, 故雲玉眞, 此即上清”에 있는 최고천이다. 그 아래의 四境은 每境에 九天合三十六天이 있다. 이는 아마도 上清 三十六天의 순서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三十六天은 “三十二天과는 다른 것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後四方之天”의 每方에는 八天의 습으로 三十二天이 있기에 “四梵天”<sup>60)</sup>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此三清五境三十六天, 謂之大羅. 四方四梵三十二天內種民四天, 謂之中羅. 其欲、色、無色三界二十八天, 謂之小羅也”라 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라면, 大、中、小羅의 구분으로 볼 때, 薛幽棲의 관점에 의하면 上清 三十六天은 靈寶 三十二天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大羅”는 “三清五境三十六天”의 총칭으로 三十六天 중의 一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太清、玉清、上清 등 “三清天”의 명사 개념에 있어 일부 혼란이 있었다.

비슷한 상황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太玄金鎖流珠引』<sup>61)</sup>에서도 나타난다. 이 경전의 분류법에 의하면 “大羅, 天名也. 羅者, 都蓋三十六天, 謂之大羅也. 其大羅之中, 列於四方, 一方八天 … 四八三十二天,

60) [北宋] 陳景元集,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卷2, 『道藏』第2冊, p.217, p.226, p.213, p.217, p.217.

61) 이 경전은 李淳風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는데, 완성된 시기는 8세기 말 9세기 초로 보인다. [英] 巴雷特 著, 呂鵬誌譯, 『<金鎖流珠引>年代考』, 『宗教學研究』(2006, 第2期), pp.24-25 참고.



中淸至於太淸三天, 三十五天. 更包上淸一天, 總三十六天之世界也. 元始天尊說『度人經』雲: 有三十二天, 三十二帝. 皆說中淸之下四方天也. 又不說坐者中天. 若總元始說法天, 總三十三天.”<sup>62)</sup>이라 하였다. 양자를 비교해 볼 때, 『太玄金鎖流珠引』의 天界觀은 다음과 같다. 하나, “大羅”는三十六天的 총칭이다. 둘, “上淸天”은 最高天이다. 셋, 最高天의 아래, 四方 三十二天的 위에는 三(淸)天이 있다. 이 하늘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中淸、玉淸(옥청으로 추측)과 太淸이다. 아울러 『太玄金鎖流珠引』은 三十二天에 “元始說法天”을 추가하여 총 三十三天을 만들었는데, 즉 이때 까지도 三十六天的 이론(특히 三淸天)은 조정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大羅、三炁、三淸、九天、三十二天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太上洞神天公消魔護國經』<sup>63)</sup>에서는 “元始天尊以一炁生三炁, 三炁生九炁. 三炁者, 玄元始也, 以玄一之炁, 化爲玉淸聖境大羅之天… 又以元一之氣, 化爲上淸眞境禹余之天… 又以始一之炁, 化爲太淸仙境… 又三炁各生三炁, 化成九炁, 以成九天… 九天之外, 別有三十二天… 東方八天… 南方八天… 西方八天… 北方八天”<sup>64)</sup>이라 하였다. 이 문장에서 보면, 구원은 三天에서 化生하여 나오고, 九天 이외에 또 다른 三十二天이 四方에 분포하여 있다. 뿐만 아니라 大羅와 三淸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원래 三淸天의 위에 존재하던 大羅天은 여기에서 三淸天의 하나가 되어, “玉淸聖境大羅之天”으로 불린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까지 三十六天的 이론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62) 『太玄金鎖流珠引』 卷8, 『道藏』 第20冊, p.392.

63) 勞格文은 이것을 唐代道經이라 하였다.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 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490-491, pp.1047-1048, pp.518-520, pp.1086-1087, pp.539-540.

64) 『太上洞神天公消魔護國經』, 『道藏』 第11冊, p.424.

## 2. 『道門經法相承次序』의 ‘三十六天說’

### 1) 大羅天—三清天—種民天—三界天

‘三十六天說’의 여러 요소들은 잘 종합한 경전은 『道門經法相承次序』<sup>65)</sup>이다. 이 책에는 “大羅—三清天—種民天—三界天”이라 하는 완벽한 구조의三十六天 理論을 수록해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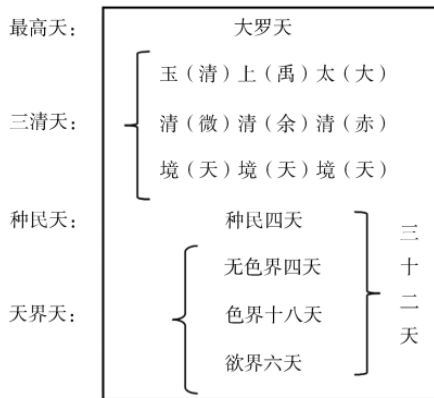
『道門經法相承次序』는 먼저 도교 전통의 “有生於無”와 “三一”創生 구조를 따라 만물의 創生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起自無先, 垂跡應感, 生乎妙一, 從乎妙一, 分爲三元, 又從三元, 變成三氣, 又從三氣, 變生三才, 三才既立, 萬物斯備”라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三元”은 三寶君을 化生하였다고 하였다. 경전은 또 三清境과 三寶君, 三清天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三清境者, 玉清、上清、太清是也, 亦名三天. 其三天者, 清微天、禹余天、大赤天是也. 天寶君治在玉清境, 即清微天也, 其氣青始. 靈寶君治在上清境, 即禹余天也, 其氣白元. 神寶君治在太清境, 即大赤天也, 其氣黃玄. 故『九天生神章經』雲: 此三號年殊號異, 本同一也, 此三君各爲教主, 即是三洞之尊神也. 其三洞者, 謂洞眞、洞玄、洞神是也.”<sup>66)</sup>라 하였다. 이상 내용은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敘教品』의 기록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단지 『道門經法相承次序』에서는 三洞의 대응관계를 추가해 넣었는데, 이는 三清、三洞 思想이 당나라 초기에 확립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sup>67)</sup>

65) 경전에는 唐高宗과 潘師正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傅飛嵐에 의하면 이 책은 潘師正이 저술한 것이라 한다. 각주 66, p.454 참고. 潘師正은 趙州 贊皇 사람으로 隋文帝 開皇四年(584)에 태어나고, 隋朝大業(605~618)에 道士가 되었으며, 唐高宗 永淳元年(682) 별세한다. 『舊唐書』卷192 『隱逸』을 참고. [後晉] 劉昫等 撰, 『舊唐書』(北京: 中華書局, 1975), 第16冊, p.5126.

66) 『道門經法相承次序』卷上, 『道藏』第24冊, p.782, p.783, p.795.

67) ‘三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복잡한데, 三洞, 三清天, 三清神 등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연구는 王宗昱, 『三洞緣起』, 『世界宗教研究』(2000, 第2期), pp.81-85; 王承文, 『道教 “三洞”學說的思想淵源』, 『中國哲學史』(2002, 第4期),

『道門經法相承次序』는 처음으로 三十六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경전이다(圖1참고). 구체적으로 보면, 自玄都玉京以下合有三十六天…從下六天爲欲界, 次十八天爲色界, 次四天爲無色界…其次三界上四天, 名爲種人天, 亦名聖弟子天, 亦名四梵天…其次即至三境, 境別左右中三宮…太清境有九仙, 上清境有九眞, 玉清境有九聖…最上一天名曰大羅天, 在玄都玉京山上이라 하였다.<sup>68)</sup> 이 경전은 三界、種民天、三清境(天)、大羅天을 종합하여 하나의 天界 시스템에 넣고, 나아가 말하기를 이는 “三世天尊”의 治所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三世天尊은 각각 過去元始天尊、現在太上玉皇天尊、未來金闕玉晨天尊으로, 그 중에서 太상은 元始天尊의 제자이다. 이렇게 정교하게 三世天尊을 구성한 것은, 분명히 불교의 三世佛 사상을 모방한 것이다. 목적은 元始天尊의 至高적 지위를 돌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1> 『道門經法相承次序』“三十六天”結構圖

pp.65-73; 王承文, 『論中古時期道教“三清”神靈體系的形成』, 『中山大學學報』(2008, 第2期), pp.34-59; 李蘇書, 『三清考』, 『臺大歷史學報』(2019, 第64期), pp.1-55을 참고하기 바란다.

68) 『道門經法相承次序』卷上, 『道藏』第24冊, p.782, p.783, p.795.

경전은 또 “郁單無量天”부터 “波梨答憇天”의 上淸九天의 명칭을 기록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元始九天”이라 칭했는데, 이러한 명칭은 上淸九天의 기원이 더욱 일찍 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혹은 당나라 시기에 상청계열을 더욱 숭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 上淸九天은 ‘三十六天說’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三淸天和 上淸九天이 누가 먼저인가 하는 질문에 따라 발생하는 三淸天和 靈寶三十二天、靈寶三十二天和 上淸九天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三十六天說’이 확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 2) 四種民天의 기원문제

비록 ‘種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진남북조시대에 많이 유행했지만, 三十六天의 구성 부분으로 四種民天을 언급한 도교경전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이 四種民天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道門經法相承次序』卷中에 의하면 “謹按『靈寶本元經』及『太真科』『諸天靈書度命經』並曰：三界、三淸、四種、大羅之別。其三界合有二十八天，次上有四種人天，次上有無上三天，次上有一大羅高蓋天”<sup>69)</sup>이라 하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並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시하는 바로는, 『道門經法相承次序』의 三十六天說은 위에 언급한 세 경전을 종합하여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四種民天은 이상 세 경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먼저 『諸天靈書度命經』을 보기로 하자. 이 경전은 『太上洞玄靈寶諸天靈書度命妙經』의 약칭으로 古靈寶經의 하나이다. 앞선 문장에서 古靈寶經의 특징을 이미 서술하였는데, 그것은 곧 당시에 이미 三界와 大羅天의 구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四種民天에 대한 언급은 없다.

69) 같은 책.

다음으로는 『太眞科』를 보기로 하자. 『三洞珠囊』은 『太眞科』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此爲四種民天, 學眞堪爲人種, 王母迎之. 登上四天者, 名曰梵行.”<sup>70)</sup>라 하였다. 『度人經四註』(李少微註) 역시 『太眞科』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上升四天, 洞入道境, 隨炁升降, 災所不及”<sup>71)</sup>이라 하였다. 이상 내용에 근거해 볼 때, 『太眞科』에는 이미 四種民天의 개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太眞科』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大淵忍爾은 이 책이 420~425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하였다.<sup>72)</sup> 이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太眞科』는 이미 완벽한 三十六天 이론을 구축했다고 하였다.<sup>73)</sup>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魏晉南北朝 시기의 여러 도교경전은 『太眞科』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현재까지 기준으로 볼 때 『太眞科』의 이론과 관련된 경전인 『道敎義樞』<sup>74)</sup>, 『三洞珠囊』<sup>75)</sup>, 『度人經四註』, 『道門經法相承次序』 등 책은 모두 『太眞科』의 이론을 인용하였다.<sup>76)</sup> 이상 네 권의 서적은 당나라의 사람들이 편찬한 것으로, 모두 당나라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인용한

70) 『三洞珠囊』 卷7, 『道藏』,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聯合出版, 1988), 第25冊, p.340, p.339, p.340.

71) [北宋] 陳景元集,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卷2, 『道藏』 第2冊, p.217, p.226, p.213, p.217, p.217.

72) [日] 大淵忍爾, 『道敎とその經典』 (東京: 創文社, 1997), pp.409-472.

73) 王皓月, 『析經求真: 陸修靜與靈寶經關系新探』 (北京: 中華書局, 2017), p.362, pp.370-375, pp.357-376.

74) 『道敎義樞』의 원제는 “靑溪道士孟安排集”이다. 현재 학계에 의하면 孟安排의 생활 연대는 700년좌우이다. 『道敎義樞』에서 『隋書』를 인용했다고 볼 때, 『隋書』의 편찬 시기는 656년이 된다. 다시 말해서 『道敎義樞』의 편찬시기는 656년이 되는 것이다. 孟安排 및 『道敎義樞』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각주 5, pp.1-3을 참고하기 바란다.

75) 『三洞珠囊』의 原題는 “大唐陸海羽客王懸河修”으로, 南宋 『寶刻類編』의 기록에 의하면, 王懸河는 예전에 成都에 네 가지 道敎碑를 세웠다고 한다. 그 중에서 『道藏經序碑』를 세운 연대는 弘道元年(683) 十二月이다. [南宋] 佚名撰, 『寶刻類編』 卷8, 粵雅堂叢書本, 中國東方文化研究會歷史文化分會編, 『歷代碑誌叢書』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第1冊, p.790 참고. 이상 내용에서 추측해 볼 때 王懸河는 高宗, 武帝 기간에 생존한 인물이다. 아울러 北周 武帝시대의 道士 王延 역시 『三洞珠囊』 7卷을 편찬하였는데, 현재 소실되었다. 『正統道藏』 太平部 에는 동일 제목의 “大唐陸海羽客王懸河修”의 『上清道類事相』 4卷이 수록되어 있다.

76) 각주 72와 동일, pp.486-487, 大淵忍爾은 단지 『道敎義樞』, 『三洞珠囊』, 『度人經四註』 등 세 권의 경전만 언급하였을 뿐, 『道門經法相承次序』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太眞科』의 上、中、下 三卷의 구분 방법은 劉宋시대의 『太眞科』와는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道藏闕經目錄』에서 말한 “『洞玄靈寶太上高上太眞科』三卷”과 더욱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로는, 현재 도교 경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太眞科』의 천계이론은 당나라 三卷本 『洞玄靈寶太上高上太眞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劉宋시대의 『太眞科』에는 아직 三十六天 이론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本元經』을 보자. 이 경전은 『道門經法相承次序』에서 인용되었고, 또 다른 경전인 『道教義樞』에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되었다. “按 『靈寶本元經』: 三十二天以上之四天爲種民, 二十八天分爲三界, 前六天爲欲界, 次十八天爲色界, 後有四天爲無色界也.”<sup>77)</sup> 즉, 경전은 분명하게 四種民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전인 『三洞珠囊』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今依 『本元經』, 配方如左: 第一太黃皇曾天氣, 系西北方梵氣… 三十二天以次差馳, 旋方而上, 羊角道周, 仍登梵行, 入三清也”<sup>78)</sup>라 하였다. 四種民天은 四梵天이라고도 불리는데, “登梵行入三清”설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하늘이 梵氣를 타고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種民梵天에서 三清天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경전 속에 기록된 三十二天和 星宿炁에 관련된 내용은 李少微의 『度人經註』와 거의 일치하다. 李少微와 成玄英의 주석서에는 모두 四種民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볼 때, 『本元經』의 편찬 시기는 이상 두 사람의 생존연대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삼자의 관계를 더욱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李少微、成玄英의 『度人經』 각주본, 그리고 『太眞科』와 『本元經』에 四種民天이 나타난 것 외에, 비슷한 시대인 여러 도교경전에서도 四種民天 혹은 四梵天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들 경전으로는 『無上秘要』, 『上清太上開天龍蹻經』,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 및 『太上三十六部尊經』이다.

77) [唐] 孟安排集, 『道教義樞』卷7, 『道藏』第24冊, p.827.

78) 『三洞珠囊』卷7, 『道藏』(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聯合出版, 1988), 第25冊, p.340, p.339, p.340.

구체적으로 보면, 北周의 도교경전 『無上秘要』에서는 “其中學眞, 堪爲種人, 王母迎之, 登常融、玉隆、梵度、賈奕四天之上… 右出『洞玄度人經』”<sup>79)</sup>이라 하였다. 이 문장은 自卷4 『三界品』에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三界 二十八天和 함께 이미 四種民天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비록 『無上秘要』의 기본 사상은 『度人經』에서 나왔지만, 『度人經』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다. 즉 『度人經』이 후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첨가해 넣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無上秘要』의 시대에 와서는 四種民天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단지 정식으로 된 명칭이 없었을 뿐이다.

『上清太上開天龍蹻經』은 三十六天에 대해 언급할 때, “上結四梵太清等天”, “上生四民天” 등 표현을 사용하였다.<sup>80)</sup> 『正統道藏』本 『上清太上開天龍蹻經』은 5卷으로, 施舟人과 袁冰凌은 이것을 宋代의 道經이라 규정하였다.<sup>81)</sup> 하지만 당나라 초기의 『度人經四註』에는 이미 “人壽歲數、根塵雜染淨, 見『龍蹻經』”<sup>82)</sup>이라 하는 표현이 있다. 아울러 『龍蹻經』에서도 色界 十八天을 色塵、細塵、清塵라 하여 成玄英의 관점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 『上清太上開天龍蹻經』은 아마도 당나라 초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 卷10에는 “故元始本文, 未盡下教. 其三清上境, 四梵天中, 眞聖修行, 其文具足”<sup>83)</sup>이라 하는 문장이 있다. 즉 이곳에서 “四梵天”이라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勞格文의 연구에 의하면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은 수나라 혹은 당나라 초기의 도교

79) 『無上秘要』 卷6, 『道藏』 第25冊, p.19, pp.35-36, p.7.

80) 『上清太上開天龍蹻經』, 『道藏』 第33冊, p.742.

81) 勞格文은 이것을 唐代道經이라 하였다.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 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490-491, pp.1047-1048, pp.518-520, pp.1086-1087, pp.539-540.

82) [北宋] 陳景元集,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卷2, 『道藏』 第2冊, p.217, p.226, p.213, p.217, p.217.

83) 『太上洞玄靈寶業報因緣經』 卷10, 『道藏』 第6冊, p.127.

경전이라 한다.<sup>84)</sup>

『太上三十六部尊經』<sup>85)</sup>은 36편의 도교경전을 통합한 것으로, 그 속에 있는 『洞玄經』은 三界 二十八天 뿐만 아니라 “四種民天, 騰勝、梵度、賈奕、常融天”<sup>86)</sup>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吉岡義豊은 말하기를, 이 경전은 당나라 초기에 지어진 것이라 하였다.<sup>87)</sup> 아울러 勞格文은 말하기를 경전 중에 나타난 “四聖”法, “天心”法 등 요소가 보여주는 바로는, 경전의 일부가 북송시대에 지어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상적 근원은 당나라 시대의 초기 도교경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sup>88)</sup> 이상 종합해 볼 때, 四種民天 개념은 당나라에 와서야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미뤄 보면, 四種民天은 東晉南北朝 시기에 유행했던 種民救度理論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론은 훗날 점차적으로 靈寶經의 三十二天界 이론과 결합하게 되는데, 北周시대의 『無上秘要』에 와서는, 이미 여러 경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당나라에 와서는 매우 유행하면서, 명확하고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四種民天, 三清天 및 靈寶三十二天의 문제가 해결 되면서, 三十六天說은 당나라 초기에 定型하게 된 것이다.

84) 勞格文은 이것을 唐代道經이라 하였다.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 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490-491, pp.1047-1048, pp.518-520, pp.1086-1087, pp.539-540.

85) 北周 『無上秘要』에도 “三十六部尊經”이라 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전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三十六天 理論의 발전과정에 근거하여 볼 때, 『正統道藏』에 있는 『太上三十六部尊經』과 『無上秘要』에서 언급한 三十六部尊經은 비록 명칭은 비슷하지만, 동일 경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86) 『洞玄經』, 『道藏』 第1冊, p.586.

87) 朱越利的 『道藏分類解題』(北京: 華夏出版社, 1996), p.262.

88) 勞格文은 이것을 唐代道經이라 하였다.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 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490-491, pp.1047-1048, pp.518-520, pp.1086-1087, pp.539-540.



### Ⅲ. 당(唐)·송(宋)·원(元) 도교의 '삼십육천설'에 대한 다차원적 조정

비록 三十六天 이론은 당나라 초기에 형태를 갖추지만, '三十六天說' 자체가 여러 학설을 종합해 만든 것이기에,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경전 편집자들은, 기존의 이론에 새로운 사상을 보충하면서, 이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추가 주석과정을 거치면서, 三十六天 이론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도교를 대표하는 천계이론으로 자리잡았다.

#### 1. 上清 九天과 靈寶 三十二天의 지속적인 조정

'九天' 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청경에 최초로 등장하였지만, 훗날 영보파에서 받아들인 후 명칭을 바꿔(앞 六天의 명칭을 동일하나, 후 三天의 명칭을 달리하였다)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東晉南北朝시대에 생산된 이후, 영보파 계열의 三界 四民 三十二天 理論과 끊임없는 조정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두 이론을 따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太上洞玄靈寶天關經』<sup>89)</sup>은 말하기를 “九天者, 從下第一波利天… 第九郁單天… 然天位乃多, 今略舉三十六名, 分爲三界、四天、三清境域也… 最上一天, 號曰無上大羅高蓋天.”<sup>90)</sup>이라 하였다. 교단 외부 문서의 기록도 이와 비슷하다. 이 이론에 대해 段成式(803~863)은 『酉陽雜俎』에서 말하기를 “道列三界諸天, 數與釋氏同, 但名別耳. 三界外曰四入境… 四入境外曰三清… 三清上曰大羅, 又有九天波利等九名.”이라 하였다. 즉 그 역시

89) 勞格文은 이것을 唐代道經이라 하였다.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 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490-491, pp.1047-1048, pp.518-520, pp.1086-1087, pp.539-540.

90) 『太上洞玄靈寶天關經』, 『道藏』 第19冊, pp.925-926.

양자를 분리하여 서술한 것이다.<sup>91)</sup>

당나라 말기에 와서 두광정은 『道德眞經廣聖義』을 통해 上淸九天과 靈寶三十二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太上老君은 먼저 元始三氣를 다스려 三淸天을 생한다. 다음으로는 “三淸之氣”를 통하여 三氣三境을 생하고, 또 九氣九天도 생한다. 여기서 九天은 각각 三氣를 생하는데, 그 합이 三十六天이 된다. 이러한 생성도식은 “三天—九天—三十六天”의 이론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三十六天에 대해 서술한 이후, 그는 곧바로 三界、四民、三淸、大羅天 등 천계 구조에 대해 언급하였다. 두 가지 三十六天理論에 대한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두광정은 양자의 관계는 하나의 派生關係라고 말했다. 즉 “三—”도식으로 하여 생성된 三十六天은 “三淸(天)之氣”가 化生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四民、三界、上極、三淸은 是其數也.”<sup>92)</sup>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천계이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량상으로 우연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두광정의 이러한 해석방법은 송나라 시대에 와서도 여러차례 언급 되는데, 북송의 賈善翔은 『猶龍傳』에서 이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93)</sup> 아울러 남송의 謝守灝은 『混元聖紀』에서 杜光庭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여러가지 요소들을 혼합해 넣었다. 예를 들어 그는 三淸天에서 나온 郁單天、禪善天 등 九天에 대해 명명하기를 “九大梵天”이라 하였다. 이 이론에서 九天은 三十六天을 생할 뿐만 아니라, “九大梵天”이라 하여 諸小梵天을 통솔한다고 하였다. 三淸天 이하는 四民 三界三十二天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三十二天之下에 始青天、靑元天 등 “八梵天”, “八梵天”을 추가해 넣고, 그 아래에는 “人間世”를 추가해 넣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融炁、炎炁 등 “九炁”의 개념을 삽입해

91) [唐] 段成式 撰, 『酉陽雜俎』 前集卷2 (北京: 中華書局, 1981), p.12.

92) [唐] 杜光庭 撰, 『道德眞經廣聖義』 卷2, 『道藏』 第14冊, pp.317-318.

93) [北宋] 賈善翔 撰, 『猶龍傳』 卷2, 『道藏』 第18冊, p.6.

넣는다.<sup>94)</sup> 하지만 그가 구축한 방대하고 복잡한 천계이론은, 두광정에 비해 오히려 명확하지 못했다. 그는 다른 저서인 『太上混元老子史略』에서도 이상 이론을 계속하였다.<sup>95)</sup>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九天과 三十二天 이론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靈寶無量度人上經大法』은 또 새로운 천계이론을 제시하는데, 이 경전에서는 劫運 개념과 天界理論을 결합(이 경전이 최초는 아니다)하여 설명하였다. 경전에 의하면 구천이 出世한 것은 다른 도교 경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三炁가 化生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劫期和 함께 三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잉태설도 포함하고 있는데, 즉 “八梵天”은 始靑、始元 등 다른 九天을 잉태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三十二天은 第四劫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sup>96)</sup> 이 천계설은 劫期理論을 사용하였는데, 그렇게 하여 九天과 三十二天은 서로 다른 시공에 배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니, 천계이론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좋은 시도라 할 수 있겠다.

## 2. 昊天玉皇 神格的 추가

송나라 시대에 와서 ‘옥황’의 신격은 끊임없이 상승하는데, 특히 眞宗、徽宗 두 황제는 玉皇에 대해 매우 숭배하고, 封號를 하사하였다. 政和六年(1116) 宋徽宗은 玉皇大帝의 신격을 승격하여 선포하기를 “太上開天執符禦歷含眞體道昊天玉皇上帝”라 하였다.<sup>97)</sup> 이렇게 玉皇은 나라의 최고 祀典에서 昊天上帝와 一體을 이루게 된다.<sup>98)</sup>

94) [南宋] 謝守灝 編, 『混元聖紀』 卷2, 『道藏』 第17冊, pp.793-794.

95) [南宋] 謝守灝 撰, 『太上混元老子史略』 卷中, 『道藏』 第17冊, p.895.

96) 『靈寶無量度人上經大法』 卷63, 『道藏』 第3冊, p.970, p.770.

97) 『宋史』 卷104 『禮誌七』, [元] 脫脫等 撰,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第8冊, p.2543.

육황의 신격이 승격한 배경에는 도교의 천계이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南宋의 『上清靈寶大法』에서는 먼저 元始天尊、靈寶天尊、道德天尊을 묘사한 이후, 곧바로 이어서 昊天玉皇大帝의 天界에서의 지위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自玄炁而化生，居大羅之下，上清之上，掌四種民梵天，而尊於三界之上，是爲天主… 治太微玉清宮”<sup>99)</sup>이라 하였다. 이 경전은 또 “八十一天”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大羅天者，虛無居之，包含天地，不可窮極… 大羅一炁生三天，三清之境是也。三天降炁而生九重，一曰無景郁單無量天… 九曰元洞波黎答憇天。每一重又各生三天，九重總爲三十六天，本經所謂上清之天是也。高上虛無，皆謂之上清，非特稱一境而已。次分種民三界三十二天，統治四方，在九天之下，三光之上… 又有八極八天，外魔一天，在三十二天之下，三光之外。八極八表，自清微天至外梵天，總數八十… 與大羅一炁，共爲八十一天。”<sup>100)</sup>이라 하였다. 경전의 다른 부분에는 또 “第一太清十二天，九仙所居。上清十二天，九眞所居。玉清最上十二天，九聖所居。共三十六天。上清居太清之上，玉清之下矣。”<sup>101)</sup> 및 “玉清之下，上清之上，有天帝曰玉眞天帝，乃昊天玉皇上帝”<sup>102)</sup>라 하는 기록이 있다.

이상 인용문을 볼 때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하나, 여기서 말하는 ‘上清之上’을 우리는 ‘上清之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는, 이 문장에서 말하는 ‘上’은 높낮이를 의미하는 上下의 개념이 아니라, 일명 “玉眞天帝”(혹은 “九眞”之一 또는 之主)로 불리는 玉皇昊天上帝가 “上清十二天”(“九眞”의 거처)에 거해 있으면서, 四種民天을 다스리니, 그 지위는 三清尊神에 버금간다는 의미이다.

98) 蓋建民, 『民間玉皇信仰與道教略論』, 『江西社會科學』(2000, 第8期), pp.17-19; 梅莉, 『玉皇崇拜論』, 『湖北大學學報』(2011, 第5期), pp.87-92 참고.

99) [南宋] 寧全眞 授·王契眞 纂, 『上清靈寶大法』 卷10, 『道藏』 第30冊, p.730, p.732, p.893, p.895.

100) 같은 책.

101) 같은 책.

102) 같은 책.

둘, 三清三十六天 이론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八十一天'의 三十六天和 杜光庭、謝守灝의 천계 이론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즉  $(3+1) \times 9 = 36$  (三天의 중요성 강조)의 구조이다. 다른 한 가지 유형은  $3 \times 12 = 36$ 의 형식이다. 동일 경전에서 동일한 "三十六天"의 개념에 대해 두 가지로 서술한 것은, 경전의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玉皇과 관련된 天界사상을 세우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있던 천계이론과의 모순을 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경전 제작자의 주된 관심사는 創生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八十一天(三清天+三十六天+三十二天+八極天+外魔一天+大羅一天)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數字神聖性의 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라면, 『上清靈寶大法』의 天界說은 『靈寶無量度人上經大法』(다양한 天界學說 모음집)의 이론을 받아들인 후, 널리 알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靈寶無量度人上經大法』은 三清과 玉皇을 각각 第三十五、三十四、三十三과 三十二天에 배치하여 지위의 차이를 나타냈다.<sup>103)</sup> 문제는 이러한 배치는 "三十二天"과 "三清三十六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3. 원나라 도교경전의 天界說

원나라 시대에 오면서 '三十六天說'은 부단한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일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원래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로 하자.

첫번째는 劉惟永의 이론이다. 그는 『道德眞經集義』에서 말하기를 "大羅三十六天, 金火土宮, 三合之數, 成也. 中羅三十六天, 合三十二天, 四始之數, 生也. 『救苦經』曰: 天上三十六, 地下三十六, 是天之生、地之

103) 『靈寶無量度人上經大法』卷63, 『道藏』第3冊, p.970, p.770.

成, 合天地之數, 總七十二以爲節候, 成始而成終也”<sup>104)</sup>라 하였다. 비슷한 주장으로 그는 또 다른 경전인 『道德眞經集義大旨』에서는 “大羅、中羅合七十二, 以應天地之數. 七十二候合上九天, 成八十一太玄, 方州部家取此數也”<sup>105)</sup>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神聖性을 가진 ‘數’의 조합으로, 天界의 구조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두번째는 陳致虛이다. 그는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한 천계이론을 제시하는데, 먼저 “始炁”가 “元始祖劫”할 초기에 三炁를 化生한다고 하였다. 이 三炁는 清微 등 三(清)天을 화생하고, 三天之炁는 또 始靑、靑元 등 “九梵天”을 화생한다. “九梵天”之炁는 “大霄暉明流光素景天” 등 “九霄天”을 화생하고, “九霄天”之炁는 “南方郁單無量天” 등 “生神九天”(通常意義上的上清九天)을 화생한다. 다음으로는 大羅、上清、玉眞의 三十六天 이론이다. 이 三十六天은 四民三界 二十八天을 화생하는데, 최종적으로 五億諸天, 八圓世界를 화생하게 된다. 그리고 天界의 중심은 三清大羅聖境으로, 이 境에는 玉京山이 있으며, 이 산은 天界之下의 崑崙山과 서로 대응한다고 하였다.<sup>106)</sup> 이러한 천계이론은 앞선 모든 천계 학설을 포함한 것으로, 문제는 여러 이론 사이에 일부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生神九天”을 언급한 후 곧바로 “又生大羅、上清、玉眞三十六天”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三十六天의 설정은 송나라의 학설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문장에 나오는 ‘又生’ 두 글자는 도대체 어느 문장을 이어받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즉 三十六天은 “生神九天”에서 나온(아마도 아닐 것이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 그는 명확한 해석을 달지 않았다. 그는 또 三十二天과 불교의 天界를 대응하여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太皇黃曾天”의 불교적 명칭은 “四天王天”이

104) [元] 劉惟永 編, 『道德眞經集義』 卷2, 『道藏』 第14冊, p.98.

105) [元] 劉惟永 編, 『道德眞經集義大旨圖序』 卷上, 『道藏』 第14冊, p.58.

106) [元] 陳致虛 撰, 『太上洞玄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註』 卷中, 『道藏』 第2冊, p.410, pp.414-418.

고, “太極平育”의 불교적 명칭은 “最上妙天”이라 하였다.<sup>107)</sup> 陳致虛는 다양한 天界學說을 조합하여 모든 것을 포함한 질서 정연한 새로운 천계이론을 구축하였다. 문제는 그가 기존의 명확하게 설명된 三清天과 上清九天 이론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많은 의문점을 생기게 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章希賢이다. 그는 『道法宗旨周衍義』에서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天界理論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三清天은 最高天이고, 三清의 통솔 하에 있는 三十六天은 大羅天이라 불린다. 그 아래는 “大梵天”이라 불리는 種民天이고, 種民天 아래는 三界 二十八天이라 불리는 “四梵小羅天”이다.<sup>108)</sup> 이렇게 三清天和 大羅天의 위치를 바꾸고, 三十六天和 二十八天을 모두 平面 四方으로 분포하여 배치하는 설정은 매우 생소하다. 즉 당나라 이후에 형성된 ‘三十六天說’과는 큰 차이가 있다.

#### IV. 결론

동진시대 중후기의 복잡한 종교적 환경과 마주하여, 상청과와 영보파는 경쟁 과정에서 새로운 천계이론을 구축하여, 자신들의 신학체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양자는 불교의 천계사상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중국 전통의 ‘道’, ‘氣’, ‘五行’ 등 우주론 사상과 결부하여 새로운 천계이론을 구축하였다. 이에 대해 謝世維는 말하기를, 도교경전은 불교의 우주사상을 차용하여 천계이론을 구축할 때, 상당히 많은 불교적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炁’의 개념을 융합해 넣고, 그것을 최고의 경지로 승격시킨 후, 이를 道の 구체적인 현현이라 하였다.<sup>109)</sup>

107) 같은 책.

108) 『道法宗旨周衍義』 卷上, 『道藏』 第32冊, pp.608-609.

거시적으로 보면, 상청경과 영보경의 천계이론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접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상은 각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우선 상청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三十六은 불교의 分層理論을 차용하여 말하기를, 三十六은 층을 나눠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創生過程은 도교 전통의 ‘氣化’와 ‘三一’사상을 따랐다. 영보과의 三十二天은 주로 佛敎 天界說의 欲界、色界、無色界 등 “三界”이론을 따라 三十二天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들에 의하면 三十二天의 創生方式은 元始天尊이 직접적으로 創生했다고 한다. 아울러 영보과가 구축한 천계이론은 중국 전통의 平面 四方 各八天의 구조를 따랐다. 물론 두 교과의 천계이론이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 상대의 사상을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상청경에 나오는 九天의 개념은 훗날 영보경에서 수용하였고, 반대로 영보경에서 최초로 제시한 五方炁數의 개념은 후에 상청과에서 수용하였다. “三十六天說”의 三界理論、三清天理論、大羅天理論 등은 당시에 이미 형성되었다. 하지만 영보과가 구축한 천계이론은 숫자 ‘4’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고, 상청과의 천계구조는 숫자 3과 9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근원적인 모순을 야기하게 된다. 나아가 영보과의 三十二天 이론에 의하면, 하늘은 元始天尊이 직접적으로 創生하여 생겨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三一”의 파생 구조를 따른다. 하지만 영보과의 三十二天 이론은 마지막까지 三清天과 上清九天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이 ‘三十六天說’이 완전하게 成型 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또 다른 문제는 四種民天의 成型이다. 이에 비해 上清三十六天 이론은 훨씬 편리하다. 단지 一炁가 化生한 三天과 三清天을 서로 대응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上清三十六天은 자연스럽게 三清天과 결합하여 동일한 天界 시스템에 자리하게 된다.

영보과는 기존에 있는 경전을 조정하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

109) 謝世維, 『大梵羅羅：中國時期道教經典中的佛敎』(臺北：臺灣商務印書館, 2013), p.223.



고, 그리하여 靈寶三十二天은 최종적으로 上清三十六天을 대체하여 ‘三十六天說’의 주요 골격이 된다. 이러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는, 영보파 사상에서 上清과의 九天 개념은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많은 경우에는 上清九天을 따로 언급하였다). 이런 방법은 三天과 靈寶三十二天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조정에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었다. 결과 四種民天 理論의 확정과 함께 三清天 및 三十二天의 문제가 당나라 초기에 해결되면서, ‘三十六天說’은 완전히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이후로 이 사상은 도교계에서 받아들여진 후 부단한 수정을 거치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 송나라에 들어선 이후 “三十六天說”은 또 ‘玉皇’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격과 대응관계를 형성하는데, 결과 천계구조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宋元 이후의 도교는 다시 上清九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大部頭의 集合性道經이 여기에 속했다. 이들은 다양한 천계이론을 나열하거나 層積하였는데, 문제는 경전을 제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완성된 만큼, 내용상에 일정한 모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신격이 등장할 때마다 천계이론에 대해 일부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十六天說’은 상당히 견고한 핵심구조를 갖고 있기에, 가감의 방식으로 교리 발전의 필요에 잘 호응해 주었다. 이러한 ‘常’과 ‘非常’(李豐楙 교수의 이론)의 天界구조가 설명하는 것은, ‘三十六天說’은 곧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층층이 누적하여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三十六天說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독자들에게 三十六天說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三十六天說 자체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함께 자신만의 논리적 구조를 구축해왔다. 주요 구조인 “大羅—三清—四民—三界” 역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형성된 것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곧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도교는 천계이론을 구축함에 있어, 숫자

3, 9, 36, 72, 81을 매우 숭배했고, 이러한 숫자들을 해석할 때, 비록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三十六天의 기본구조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서 ‘三十六天說’은 하나의 천계이론이 아니라, 핵심구조를 둘러싸고 형성된 천계이론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道藏』

『真誥』

『魏書』

『三洞珠囊』

『洞眞太上太霄瑯書』

『太上三天正法經』

『洞眞太上說智慧消魔眞經』

『上清外國放品青童內文』

『無上秘要』

『太上洞玄靈寶五符序』

『上清大洞眞經』

『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

『無上秘要』

『太玄金鎖流珠引』

『道門經法相承次序』

卿希泰主 編, 『中國道教史』第1卷,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6.

路旻, 『道教三天觀新論 — 以清微天等三天與九天關係爲例』, 『世界宗教文化』, 2018, 第2期.

蕭登福, 『道教五方三界諸天“氣數”說探源』, 『成大宗教與文化學報』, 2001.

蘇輿, 『春秋繁露義證』, 北京: 中華書局, 1992.

朱越利, 『道藏分類解題』, 北京: 華夏出版社, 1996.

曾召南, 『尹軌和 <棲觀先師傳>考辨』, 『四川大學學報叢刊』第25輯.

王明, 『抱樸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6.

王承文, 『敦煌古著靈寶經與晉唐道教』, 北京: 中華書局, 2002.

王宗昱, 『道教的六天說』, 北京大學中國傳統文化研究中心 編, 『北京大學百年國學文粹』(哲學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_\_\_\_\_, 『〈道教義樞〉研究』,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1.
- 王皓月, 『〈三天正法經〉的成書和演變』, 『世界宗教文化』, 2013, 第6期.
- \_\_\_\_\_, 『析經求真: 陸修靜與靈寶經關係新探』, 北京: 中華書局, 2017.
- 李蘇書, 『三清考』, 『臺大歷史學報』, 2019, 第64期.
- 丁培仁, 『〈三皇經〉新考』, 『宗教學研究』, 2012, 第4期.
- 陳昭吟, 『早期道經諸天結構研究 — 以道藏本 〈太上靈寶五符序〉爲中心』, 山東大學博士論文, 2006.
- 何寧,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 [北宋] 陳景元 集,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卷2, 『道藏』 第2冊.
- [日] 小林正美 著·李慶 번역, 『六朝道教史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1.
- [清] 阮元校刻, 『十三經註疏』, 北京: 中華書局, 1980.
- [프랑스] 賀碧來 著·萬毅 번역·呂鵬誌 교정, 『佛道基本矛盾』, 『法國漢學』 第7輯 “宗教史專號”, 北京: 中華書局, 2002.
- [後晉] 劉昫等 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Erik Zürcher, “Buddhist Influence on Early Taoism: A Survey of Scriptural Evidence,” *T’oung Pao*, Second Series, 66:1/3, 1980.
-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 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Abstract

**The Daoist Theory of ‘Thirty-Six Heavens  
(三十六天說)’: Its Developmental Process and  
Accumulated Layers from the Eastern Jin Dynasty  
(東晉) to the Song-Yuan Dynasty (宋元)**

**Sun Weijie**

Assistant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of Daoism and Religious Culture,  
Sichuan University

The Thirty-Six Heavens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concepts among the structural theories pertaining to the heavenly realm in Daoism. This theory, which emerged during the Eastern Jin period, did not originate from the Code of the Great Perfection (太真科), the scripture of Celestial Master Daoism (天師道) in the Liu-Song (劉宋) period.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hirty-Six Heavens,’ Daoism was influenced by the Buddhist view of the heavenly realm and incorporated the Chinese traditional cosmic theory of the interdependence of the Dao and Qi (道一氣).

In addition, the theory of the Thirty-Six Heavens is also based on the Thirty-Six Heavens (三十六天) theory found in the Lingbao Scripture (靈寶經). Simultaneously, it integrates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numbers in the Five Directions of the Na Yin (納音) system (corresponding sound), the three qi of ‘Xuan

(玄), Yuan (元), and Shi (始),’ the Heaven (Realm, 境) of Three Purity (三清天), the Ninth Heaven (九天), the Thirty-Six Heavens, and the celestial number (天數) ‘twelve (十二)’ from the scriptures of the Supreme Purity lineage (上清經). These elements began to develop during the Eastern Jin-Northern and Southern Dynasty period, but a complete theoretical framework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Henceforth, the issues were settled in the early Tang Dynasty regard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Four Heavens of the Seed-People (四種民天), the Heaven of Three Purity, and the Thirty-Two Heavens (三十二天). Accordingly, the structure of Great Canopy Heaven (大羅天), the Heaven of Three Purity, the Heaven of the Seed-People (種民天), and the Heaven of the Three Realms (三界天) was completed. However, the theory has undoubtedly been revised and expanded over time. This theory of Thirty-Six Heavens has resulted from the accumulation of various accomplishments, embedding multiple meanings. A number of subjective interpretations were added to it. Furthermore, the divinity of the Jade Emperor (玉皇) was included during the Song-Yuan period. In other words, the theory of Thirty-Six Heavens is a collective term for the theory of heavenly realm (天界理論) based on the theme of heaven.

**Keywords:** Daoist view of heavenly realm, the theory of Thirty-Six Heavens, the Lingbao Scripture, the Scripture of Supreme Purity, accumulated layer